

김기식을 어찌할고...

청와대 정면돌파 의지에 민주당 '곤혹'

정의당까지 사퇴 압박

정의당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여론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여야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상무회 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적임자를 모색해 금융 적폐청산을 힘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마저 김 원장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사실상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헌법도, 교육도, 노동도, 사회도, 방송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금융도 좌편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김기식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1년도 되지 않아 정의와 상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인사라인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를 향해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기식

금융위원장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빠른 수록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여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위에 질의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오히려 야권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파문을 덮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위에 질의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위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철뉴스

이용섭 "파견명령에 내 선택권 없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근무 경력 논란 해명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자신의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근무 경력 논란에 대해 "경쟁후보의 근거 없는 허위와 비방과 가짜 뉴스이며, 5월 정선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 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민주·인권·평화의 4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

에서 "청와대 근무 이력은 지난 2010년 5·18구속부상자회가 긴급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고 공식 발표까지 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 "저는 5·18 당시 광주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광주에 있지 못한 수많은 호남인들이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며 슬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며 "1985년 청와대 근무도 재무부 장관의 파견명령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인 저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근무했던 청와대 사정비서실 2부는 "공직자 사정이나 시국 사건과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사정비서실 2부에 배치돼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담당했다"며 "공직자 사정이나 시국사건에 담당하는 사정3부나 민정비서실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장신기 '월남동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추진



장신기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2일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월남동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월남동 버스 회차지'는 월남동 공동주택 1·2단지(1438세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고 소음과 매연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한 "월남동 시내버스 회차지가 이전되면 부지는 구립도서관이나 역사박물관 공영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존 취락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휴식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향상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대학교수 104명 "임형진 후보 지지"



광주대와 동산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광주지역 대학 교수 104명이 더불어민주당 임형진 남구청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서갑성 교수협의회회장, 임영철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 박해원 호남대학교 예술대학장 등 광주지역 대학교수들은 12일 "임 후보가 경륜, 도덕성, 정책, 인재 풀 등 모든 면에서 남구청장 후보로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적격자로 판단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임 후보가 앞서 밝힌 ▲신성장 에너지의 메카 남구 ▲창업과 성공에 투자하는 남구 ▲교육공동체와 거듭나는 남구 ▲구민이 주도하는 복지공동체 등 남구 발전 비전에 대해서도 "남구 지역민들의 숙원과 바람을 잘 이해하고 있고 지역에 대한 정책과 공약도 잘 준비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조오섭 "북구복지재단 설립...안전망 구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다(多)가지북구복지재단을 설립해 북구 행복을 완성할 복지정책과 촘촘한 북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다(多)가지북구복지재단은 주민, 사회복지 전문가, 북구청이 힘을 합쳐 북구 복지정책에 관해 연구·기획하고, 금융·법률 등 사회 자원 확보와 복지수요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마련할 것"이라며 "43만 북구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삶의 모양이 다양한 곳에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적용해서는 복지 불균형, 복지 소외의 결과만 초래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정책을 섬세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오봉 '여수 시민중심 3·3·3 프로젝트' 제시



권오봉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시민중심 3·3·3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3대 관광도시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30만 회복을 뜻한다.

권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행정혁신부분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과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수산단 고도화, 국제 일부 지방세 전환 등 경제혁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교육혁신 등 경제·복지분야 공약도 내놨다. 이어 여수박물관 건립, 한려대학교(여수~남해) 건설, 경도대교 국비 확보 등도 약속했다.

남구 광역·기초의원 출마 5명, 김병내 지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등 5명이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당 소속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 선언은 남구 광역의원 출마한 배진하, 신다감 예비후보, 남구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황도영, 남구 비례의원 도전한 전신에 예비후보, 지방문 전 국회의원 비서 강창용 등 5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구를 일지리와 경제 중심의 도시, 나아가 서남권 경제발전의 거점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인물을 구청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대변하는 능력 있는 인물이 남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지역택시노동조합, 문인 후보 지지



광주시지역택시노동조합(의장 최진영) 북구지역대표자들은 12일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오늘 6·13지방선거에서 문인 후보를 조합 차원에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광주지역택시노동조합 최진영 의장을 비롯 북구지역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최 의장 등은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북구 발전의 호기를 맞은 이때, 북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준비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빛고을로, 무진로 등 도로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온 문인 후보야말로 북구의 도약을 저지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다"고 주장했다.

장성수 "자치구 재정 안정적 확보돼야"



장성수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2일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재원조성특별교부금의 투명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자치분권의 본질은 중앙정부와 광역시 간 업무영역,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적절한 업무 및 안정적 재정 배분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동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위탁 ▲집단민원 예상사업 주민투표제 의무화 ▲구 예산 지원 사회단체 독립성 보장 ▲계획수립단계의 주민참여 의무화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주체 지원체계 실시 ▲주민현안사업의 사전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추진 등 자치분권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

명현관 전 전남도의회 의장, 해남군수 출마



명현관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12일 해남읍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해남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명 전 의장은 최근 민주평화당 해남군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명 후보는 이날 "인사혁신으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살아 숨쉬는 공직풍토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수가 되면 자신부터 혁신하겠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자신이 술선수법에 청렴서약을 하고,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명 후보는 문화관광재단 설립, 작은영화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신축, 빛의 숲 조성 등의 공약도 내놨다. /박정옥·오광록·김창화기자 jwpark@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